

중소·벤처기업 해외 진출의 종합 거점, 글로벌비즈니스센터 (GBC) 입주기업 모집

- 전 세계 14개국 22개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해외 진출 희망 중소·벤처기업에 해외 사업 운영, 현지법인 설립 등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
- 사무공간 제공 외에도 법률·회계 등 현지 진출 상담부터 해외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까지 성공적인 현지 정착을 위한 전방위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, 중소기업진흥공단(이사장 강석진, 이하 중진공)은 5월 27일(수)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안착을 위해 **글로벌비즈니스센터** (Global Business Center, 이하 GBC)의 **입주기업**을 모집한다고 밝혔다.

GBC는 중소·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종합 지원 거점으로, 현재 전 세계 **14개국 22개 주요 도시**에 설치되어 있다. 현지 사무공간 제공부터 해외시장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 지원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며,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.

<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설치·운영 지역 (26.5월 기준) >

구분	미 국	중 국	베 트 남	독 일	러 시 아	일 본	태 국
지역	· 워싱턴 · 뉴욕 · 시카고 · LA	· 베이징 · 선전 · 상하이 · 충칭 · 창다오	· 호치민 · 하노이	· 프랑크푸르트	· 모스크바	· 도쿄	· 방콕
구분	인도네시아	인 도	카자흐스탄	멕 시 코	칠 레	사 우 디	U A E
지역	· 자카르타	· 뉴델리	· 알마티	· 멕시코시티	· 산티아고	· 리야드	· 두바이

GBC 입주기업에는 **독립 사무공간***과 **공용 회의실**이 제공되며, 비입주기업에도 **개방형 공유오피스** 등 현지 정착을 위한 인프라가 제공된다. 기업들은 이를 발판 삼아 현지법인 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추진할 수 있다. 이외에도 조기 안착을 위한 맞춤형 **사업화 프로그램** 등 다각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. 아울러,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**비입주기업**에게도 원활한 현지 정착을 위한 법률·회계·노무 등 전문 상담, 해외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**특화프로그램****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.

- * (지원 기간) 최대 3년, (지원 금액) 1년차 현지 임차료의 80%, 2년차 50%
- ** (뷰티) 마케팅 및 팝업스토어, (테크) 현지 전문기관 협업 투자 프로그램 등

또한, 올해는 입주기업의 수출다변화와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**해외 멘토단***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한다.

- * 거점별 2대 분야 멘토 구성: 해외진출 노하우, 규제·정책

중기부 심재운 글로벌성장정책관은 “GBC는 우리 중소·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전초기지”라며, “앞으로 GBC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영토 확장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GBC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누리집 (<https://www.kosmes.or.kr>) ‘지원사업-글로벌비즈니스센터-온라인 신청’ 항목에서 **상시 신청**할 수 있으며, 공유오피스는 온라인예약시스템 (<https://gbc.kosmes.or.kr>)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.

담당 부처	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 임동우 (044-204-7500)
		담당자	사무관 정지수 (044-204-7516) 주무관 김지은 (044-204-7517)
담당 기관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	담당자	팀 장 김근호 (055-751-9671) 과 장 지선미 (055-751-9672)